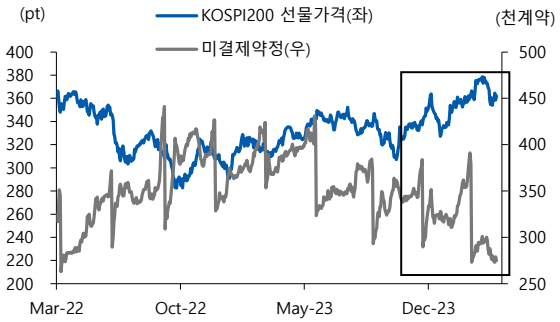
Derivatives Analyst 정인지
02-3770-3528 / inji.jung@yuantakorea.com

2024년 5월 파생 월보(요약)

1. KOSPI200 선물, 완만한 반등 가능성

- KOSPI200 선물 가격 120일 이평선 지지력 확인 후 반등해 15일 이평선 회복, 주요 보조지표 매수 신호 발행
- 외국인 누적 순매수 중립권 도달 후 반등 과정에서 순매수 규모 확대해 바닥권 형성 가능성 높음
- 현물 대비 선물 거래대금 비율도 400%까지 증가 후 줄어들면서 250% 수준 도달. 상승세 지속 가능성 지지

KOSPI200선물 미결제약정 추이 지난 3월 만기일 이후 미결제약정 회복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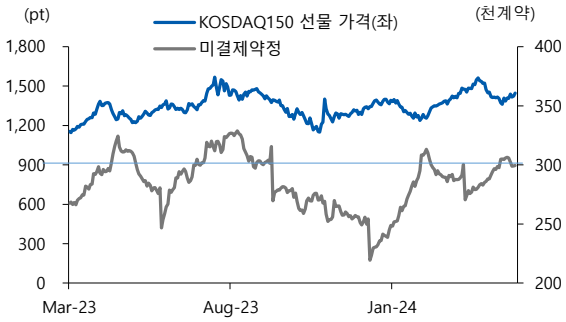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KOSDAQ150 선물, 단기 저점대 형성

- KOSDAQ150 선물 가격,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조정 과정에서 200일 이평선 하회했지만 이번에는 지지 후 반등. 장기 매수세 강화 가능성 부각
- 미결제약정 30만 계약 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가 감소. 바닥권 형성 가능성 높은 신호
-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전환 과정 진행 중

KOSDAQ150 선물 가격과 미결제약정, 300만 계약 돌파 후 하회해 단기 저점 형성 가능성 우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KOSPI200 선물, 완만한 반등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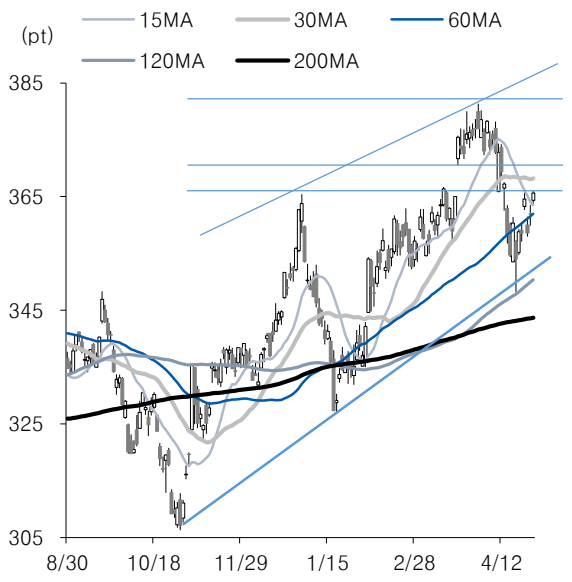
KOSPI200 선물 가격은 지난 4월 19일 120일 이평선의 지지력 확인 후 반등해 15일 이평선을 회복했고, 주요 보조지표들에서 매수 신호가 발행했다. 3월 21일에 발생한 갭구간이 저항이 되겠지만 돌파 시 전고점까지 상승 가능한 모양이다.

특히 최근 저점대 형성 과정에서 일간 약정 수량이 40만 계약을 넘어섰고, 7만계약을 넘어섰던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중립권에 도달 후 증가하고 있어 바닥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3월 만기에 미결제약정 급감 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초에 순매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조적인 방향성이 상승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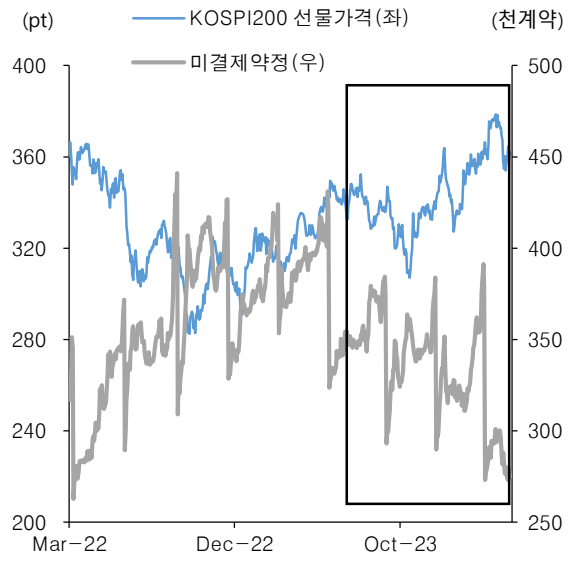
현물대비 선물 거래대금 비율이라는 관점에서도 4월 저점 형성 시에 400%까지 증가한 후 반등 과정에서 250%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시장 심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뜻으로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차트1] KOSPI200 선물 가격과 이평선 추세선, 120일 이평선 지지로 반등. 15일 이평선 회복해 추가 반등 가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200선물 미결제약정 추이 지난 3월 만기일 이후 미결제약정 회복 제한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KOSDAQ150 선물, 단기 저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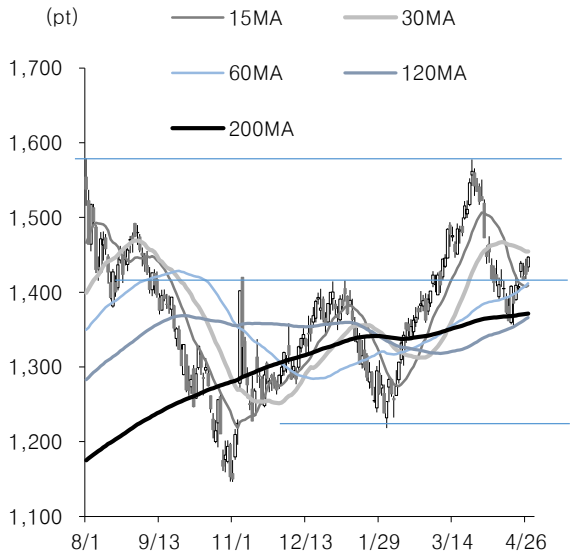
KOSDAQ150 선물 가격은 최근에 200일 이평선 지지 후 반등에 성공했다.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조정 과정에서는 200일 이평선을 하회했지만 이번에는 지지에 성공해 장기적으로 매수세 강화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반등 과정에서 선물 일간 약정 수량이 지속적으로 10만계약을 하회하는 등 투자심리가 안정된 상황이고 미결제약정은 30만계약을 상회한 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미결제 약정 30만 계약 이탈은 바닥권 신호로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KOSDAQ150 선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순매도하다가 매수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 현물시장에서는 아직도 매도세가 유효한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면 시장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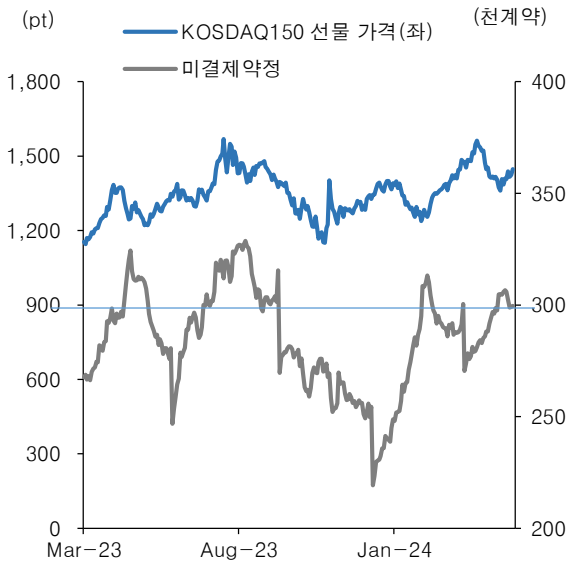
최근 반등 과정에서 KOSDAQ150 현물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아 매수세가 강한 모양은 아니다. 다만 현선비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상승 지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차트3] KOSDAQ150 선물,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조정 과정에서 200일 이평선 이탈했지만 최근 지지에 성공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KOSDAQ150 선물 가격과 미결제약정, 300만 계약 돌파 후 하회해 단기 저점 형성 가능성 우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외국인 옵션 포지션, 상승 가능성에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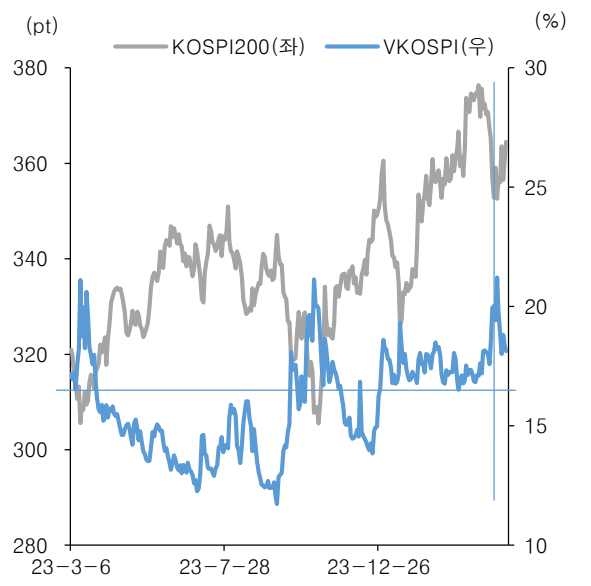
옵션시장에서는 지난 4월 19일 장 중에 VKOSPI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묘비형 캔들을 형성했고, 그 후 조정 과정이 진행 중이다. 다만 최근 일 주일 동안 18%대에 머물면서 조정 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월 이후 KOSPI200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월과 3월 만기일 옵션 거래량은 감소세를 형성했지만 4월 만기에는 조정 국면이 진행되면서 만기일 거래량이 3개월만에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KOSPI200 옵션의 미결제약정 고점과 저점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형성하면서 옵션시장 규모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다. 5월 중에 반등이 진행된다면 5월 만기일 옵션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월간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4월 만기 후 누적 순매수 포지션은 [차트6]과 같다. 하방 경직성이 유지된 가운데 상승 시 수익이 확대될 수 있는 모양으로 옵션시장의 외국인 역시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차트3] VKOSPI 일간, 지난 4월 19일 고점대 형성 후 축소 중이지만 낙폭 제한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4월 만기 후 외국인 누적 합성 포지션 추정치, 하락보다는 상승할 경우 유리한 포지션 구축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